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삭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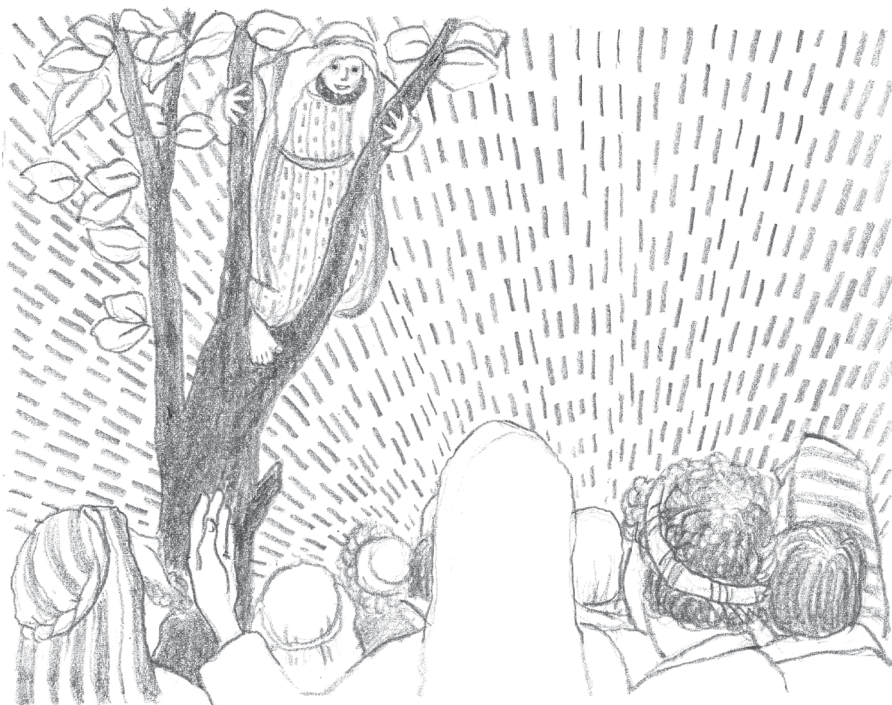
눅 19:1~10, 시 63:1~4

찬양 40장 (사슴이 시냇물을), 찬양 72장 (주께 가오니)

오늘 배울



1.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2. 주님은 나의 외모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나의 중심을 보심을 압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요 또한 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하거늘 (눅 19:2~6)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악의 도시인 예리고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의 장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바탕에는 삭개오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 성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고 인파는 많았기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뵈기를 갈망했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갔고, 그 길가에 있는 큰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위신이나 체면도,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도, 키가 작다는 신체적 약점도 예수님 보기를 갈망하는 삭개오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셨으며,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삭개오는 변화되었으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공포하셨습니다. 삭개오의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Mt 7:7)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으며 또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까(렘 29:12, 잠 8:17, 마 7:7, 계 3:20)?

- ②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눅 19:10, 마 9:13, 시 34:18, 요 1:12)?

- ③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또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체면이나 위신 등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저했거나 이와는 반대로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마 9:19~21, 막 10:46~52, 행 4:19, 20).

- ④ '삭개오'의 의미는 순수함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주님을 영접한 그의 행위는 그의 이름처럼 순수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적어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45:18

의

잠 8:17

화

사 45:22

수

렘 29:12

목

렘 33:3

금

막 10:45

토

계 3:20



한 소녀의 열망

펜실베이니아에 가면 필라델피아 근처에 시골답지 않게 아주 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스잔이라는 소녀에게 바쳐지고 있습니다. 본래 교회가 없었던 이 마을에 교회당 하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늘 아주 먼 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었기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예배당을 주셔서 여기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이 소녀의 꿈이었고 기도였고, 이 소녀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 이 소녀는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소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 소녀의 자리 밑에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와 열망이 담겨진 편지 한 장과 그 속에 마지막 현금 5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가 마을 주민과 미국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현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소녀를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이 소녀의 작은 기도, 이 5달러 지폐 한 장이 가져왔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 하나님의 거룩한 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고동 소리를 당신은 들으십니까? 여기 작은 것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질문 있어요~



여러가지 구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막 4:26~29)

이 비유는 구원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고 이삭이 되어 결실하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생명이 그 속에 시작됩니다.

‘싹’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영혼 구원’을, ‘이삭’은 구원 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성품구원’ 즉 ‘생활구원’을, ‘이삭에 충실한 곡식’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이 주님처럼 변화되는 ‘육신의 구원’ 즉 ‘몸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싹은 생명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죄 용서함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엡 1:7)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4)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요5:24), 중생했다(딤후 3:5),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갈 3:26), 성령을 받았다(엡 1:13)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싹이 자라 이삭이 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성장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니요 시작일 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듯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

위의 말씀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서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구원은 주님 앞에 가는 날 까지 계속해서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생활 속에 이루어집니다.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생활 구원도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충실한 곡식을 추수하는 일, 곧 육신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롬 8:23)

이 말씀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몸이 구속함을 받을 때 이 불완전하고 천하고 연약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는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로서 미래의 일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 3:20~21)

이렇게 구원에는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활 중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 후에 몸의 구원을 받아 주님을 뵈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붙잡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시 58:9)